

대규모 SOC 사업 국가계획 반영 총력

무주군, 국토교통부 찾아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 등 요청

무주군이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에는 최정일 부군수와 관련 분야(건설과)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신규사업 반영 등이다.

또한 △무주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 △무주 설천 삼곡~두길(국도 37호) 2차로 개량,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업 등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정일 부군수는 “국가 간선 도로망의 동서 3축 연계를 강화하고 국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L=68.4km)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이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에는 최정일 부군수와 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이러 중·횡단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국도 19호선 안성~적상 구간(L=3.5km, B=20m)의 4차로 확장 사업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무주군은 지역을 경유하는 고속도로

와 개선이 필요한 국도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포함·추진돼 실질적인 지역 발전 토대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접 시·군과의 협력 관계 구축 노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지역 안정적 정착 돕는다

청년·귀농·귀촌인 거주·농업창업 등 지원

무주군이 청년 및 귀농·귀촌인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거주 지원에 힘쓰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택 신흥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무주남대천휴먼시아, 무주에코르’) 입주 또는 입주 예정(2025년 1월 1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인 무주택 신흥부부와 미혼 청년 등으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민복지팀(063-320-2486)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 최대 3천만 원, 신흥부부 최대 4천만 원, 자녀 1명 이상인 신흥부부는 최대 5천만 원이다. 이

외에도 청년안전기금으로 주택 매입·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흥부부의 이자를 5년간 정액 지원한다.

한편,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 귀농 예정자에게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용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063-320-2066)로 하면 된다.

농업창업의 경우 용자 금액은 최대 3억 원(금리 2%), 주택 구입은 최대 7천5백만 원이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2백만 원/1가구당), 이사 비용(50만 원/1가구당) 등도 지원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진안노인복지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진안군은 18일 진안노인복지센터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두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진안노인복지센터 이문수 센터장, 진안군치매안심센터 문민수 센터장을 비롯해 관련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직원들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 등을 실시했다.

진안군은 치매극복선도단체 14개소를 지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여 치매환자가 잘 살아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7일 장수를 시금치·상추 농가와 계남면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외국인 근로자 목소리 청취

최훈식 장수군수, 농가 현장 찾아 작업환경 점검·개선점 등 논의

최훈식 장수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7일 장수를 시금치·상추 농가와 계남면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근로한 지 1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의 근로 소감과 농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대한 개선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군수는 근로자와 농가주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근로자들이 작업 중인 농장을 둘러보며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숙소 내 냉난방 시설, 샤워실, 화장실 등 생활 환경도 세심히 살폈다.

현장에서 최 군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근로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농가들이 영농 계획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

로도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고을 농가는 “매년 영농철마다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지만 장수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덕분에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빨리 타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국적의 계절근로자 팜응옥안(31) 씨는 “책임감을 갖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장수에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올해 총 4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5월까지 총 401명이 입국해 147개 농가 등에서 일손을 돕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잔여 인원 26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은 18일 군민회관에서 2025년 상반기 공무원 이퇴임식을 가졌다.

장수군, 상반기 공무원 이퇴임식 개최

장수군은 18일 군민회관에서 2025년 상반기 공무원 이퇴임식을 가졌다.

이퇴임식에는 박형복 행정지원과장, 김도경 장계면 팀장, 백임수 계북면 팀장 등 이·퇴임 공무원 3명과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가족, 동료공직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퇴임자 공직 소개와 공로패 수여, 이·퇴임자의 소감, 최훈식 군수 축사, 최한주 군의장 축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은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온 이들을 축하하고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공원공단 사청 납품 시기 발생... 주의 당부

최근 공공기관과 공무원들 사청한 물품 납품 시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사청 납품 시기 시도가 확인돼 관계기관과 납품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개 국립공원사무소(치악산, 북한산도봉, 팔공산동부)에서 공단 직원을 사청한 시기 시도가 접수 됐으며, 특히 팔공산동부사무소 명의를 사청한 사례에서는 실제로 일부 대금이 시기 계약로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공단 직원 이름을 사청해 위조된 명함을 제시하고, 납품업체에 블라인드 또는 펜스 설치 공사(총 8천만 원 규모)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이후 “공사와 별도로 자체세동기가 긴급히 필요하다”며 대금을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구해 납품업체가 실제 송금한 시기 피해가 확인됐다.

실제로 여러지역의 일부 업체에게 사기를 시도했지만, 업체에서 유선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사기를 막을 수 있었으며, 이미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공단은 즉시 전국 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에 나섰다.

공단은 납품업체 대상 홍보 강화 및 유사 시도 대응체계 구축 등 선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가곰 토마토랑 수박 축제’ 앞두고 꽃밭 조성

장수군 계북면(면장 이종현)이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제3회 장수가곰 토마토랑 수박축제’를 앞두고 축제장인 계북초등학교 일원에 약 1만5천 본의 해바라기를 식재하며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해바라기 조성은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계북면사무소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추진됐다. 해바라기 꽃이 만개하면 축제장은 형형색색의 꽃밭으로 변모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와 함께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